

문화유산방문학교
꿈이은 문화유산

방坊탄歎 유람단

노래하며 전국을 유람한 선비들의 이야기



방탄 유람단



조선시대 선비들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명승지로 유람을 떠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대표적 인 명승지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속리산과 화양구곡, 선유구곡입니다. 이곳에서 과거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당시 조상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지식인 풍류 독서 여행 선유구곡 산수유람 소원 송시열

공자 경천벽 노론 물놀이 유교 구암 난가대 도끼 금사담 기국암 문화 답사 경천벽 학소대 속리산 금사담 문화 운영담 주자 와룡암 탁족 학문 기행문 바둑 와룡폭 금사담 참

역 가마 선유구곡 세조 명승지 파곳 해방 예능 화공 음궁암 자유 연단로 교통 구경 절경

은선암 원 택리지 학소대 독서 학문 바둑 와룡폭 금사담 참

당나귀 흥 정이품송 악공 숙원 능운대 승려 문방사우

I

조선시대 선비의 평생소원, 명승유람

선비들은 풍류 속에서 학문의 길을 찾았고, 학문 속에서 풍류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선비들은 전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명승을 찾아내어 지정하고, 그 속에서 풍류를 즐겼지요.

명승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행지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가려고 할까요? 놀기 위해, 새로운 것을 구경하기 위해, 쉬기 위해 떠나지요. 더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고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 서든지 여행은 매번 새롭고 가슴 떨리게 하지요.

여행을 떠나려고 찾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내 여행지 100곳,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명소 등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덕분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새로운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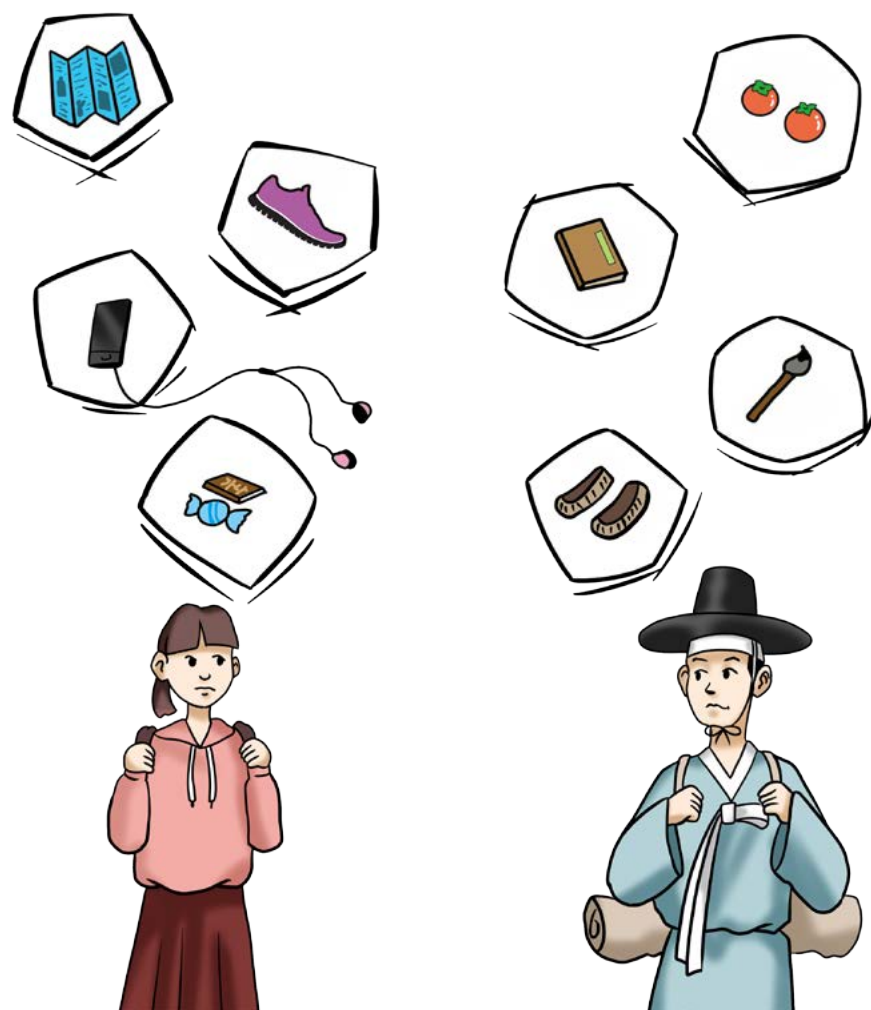
▲ 명주 청학동 소금강(명승 제1호)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여행하기 좋은 장소는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이를 명승^{名勝}이라고 합니다. 명승은 ‘이름나다’는 뜻의 “名”과 ‘빼어나다’는 뜻의 “勝”이 합쳐진 단어로, 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름난 경치를 지닌 곳을 말하지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명승을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심신 수양을 하며 학업에 정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승을 찾아 다니는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이자 과업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선비들은 명승을 지정하고,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선비들은 호롱불을 앞에 두고 평생 글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여행을 떠났대구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어요. 유교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도덕 사상인데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신하와 임금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요. 이러한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비입니다. 따라서 선비는 매일같이 학문을 닦으며 사람들에게 유교의 의미와 실천방법을 전달하는 오늘날의 지식인인 셈이지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학문^學과 예능^藝을 모두 할 줄 아는 자들로,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선비들은 잘 놀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풍류를 안다”는 것이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학문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 공자(孔子, BC 551~ BC 479)는 노(魯)나라 창평향 추읍(昌平鄕 鄕邑: 지금의 산둥성 취푸의 남동)에서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자는 중니(仲尼), 이름은 구(丘)입니다. 공자의 ‘자(子)’는 존칭입니다.



▲ 정선, <백천교>, <<신묘년 풍악도첩>>



▲ 작자미상, <<선비들의 모임>>

선비들은 풍류 속에서 학문의 길을 찾았고, 학문 속에서 풍류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선비들은 전국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명승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풍류를 즐겼지요.

선비들이 명승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것을 ‘유람^{遊覽}’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만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한다”는 말처럼 전국의 명승을 찾아다녔어요. 산수유람이 공부의 수단이고, 더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한번 여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글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선비들은 산수유람을 통해 학문을 완성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자세로 말이지요.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이고, 거경궁리는 마음을 경건히 하여 이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선비들은 산수를 직접 유람하면 격물치지와 거경궁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명승을 찾아 학문을 수양하고 산수를 감상하며 선조들의 유산을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람하는 지역의 역사·설화·전설과 선인들의 기행문을 음미하기도 하였어요. 선비들의 유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과 학문이 결합된 형태인 것이지요.

한편, 조선의 당파싸움에 신물이 난 사대부들은 현실세계의 고난과 모순을 잊기 위해 유람을 떠나기도 하였어요. 또 관직에 오른 선비들은 나랏일을 수행하기 위한 유람을 떠난 경우도 있었지요. 이러한 경우 관할지역에서는 선비를 위해 유람선을 준비하고, 풍경 좋은 야외에서 요리사가 만든 음식과 악공의 선율로 접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비들이 명승지로 유람길에 오른 이유는 다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교통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유람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비들에게 유람길에 오르는 것은 일생의 숙원이었지요. 1603년 금강산을 여행한 이정구*가 쓴 기행문에서 ‘40년 동안 고대해왔다’라고 쓴 내용이나 1607년 금강산을 찾은 권엽*이 ‘일생의 목은 빛을 청산하는 일이며 내가 죽기 전에 제일가는 기이한 만남’이라고 쓴 내용만 봐도 유람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람길에 오르는 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정묘호란 때 왕을 모시고 강화에 피난하여 청과의 화의에 반대했습니다.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으며 한문학의 대가로 글씨에 뛰어났고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집니다.

* 권엽(權喼, 1574~1650)은 조선 초기의 학자인 권근의 후손으로 1624년(인조 2) 동지검성절사(冬至兼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무고로 파직되었습니다. 복직된 후 1636년(인조 14)에 강릉부사를 지냈으며 저서로 『구사집龜沙集』과 『구사금강록龜沙金剛錄』이 있습니다.



II

유람길에 오르기 전, 선비들

유람길에 오른 선비들의 여행 가방에는 항상 책이 있었습니다. 유람길에 올라서도 선비들은 책 읽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이지요. 이들은 단순히 여행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정신을 따라 학문에 정진하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이지요.

여행지를 선택하고 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챙기지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여행을 떠나기 어려웠던 선비들. 그들은 유람길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우리는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가이드북이나 여행 후기를 살펴보지요. 그건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람을 떠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먼저 그곳을 다녀온 사람이 쓴 여행기를 읽거나 주변의 소문을 통해 계획을 짰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여행경비를 준비하고 교통편을 구하는 것이 지금처럼 쉬운 편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다가 경비를 조달하지 못해 평생의 소원을 포기하는 선비도 있었을 만큼 비용 마련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까운 곳을 여행하려 해도 가는데 1주일, 오는데 1주일, 그 경관을 오롯이 즐기는데 2주일로,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의 시간과 여행경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길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 준비는 매우 중요하였지요.

또 선비들은 긴 여행 기간 때문에 유람에 오르기 전 주변 신변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는 소^疏를 올려 임금의 허락을 받거나 사직서인 사장^{辭狀}을 제출하고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 남여

그럼 선비들은 유람을 떠날 때 어떻게 이동하였을까요? 주로 도보로 여행했던 일반 백성과 달리, 선비들은 보통 말을 탔어요. 당시 말은 비싼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없는 선비는 가까운 친지나 관아에서 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또 말 이외에 당나귀를 타기도 했어요. 당나귀는 체력이 좋고 돌이 많은 곳에서도 잘 걸어 조선시대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데요. 말에 비해 값도 싸고 먹이를 조금 먹는 것도 큰 장점이었지요. 고위 관료들은 가마를 타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산을 유람하는 데 가마의 일종인 남여^{藍輿}를 사용했어요. 산에서 남여를 메는 일은 주로 승려들이 담당하였는데, 타고 있는 선비는 편하지만 이를 메고 험한 산속을 올라가야 하는 승려들은 무척 힘들었겠지요?

유람길에 오를 때에는 혼자 떠나는 선비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도 했어요. 또한 말을 끌거나 짐을 들어주고 잔심부름을 도맡아 할 남자 종도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가족과 친지, 종을 동반하는 여행의 규모는 10~20명 수준이었습니다. 간혹 드물게 여성을 데리고 떠난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 기생이었어요.

또, 여행의 흥을 돋우는 악공을 데리고 가 음악을 통해 산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기도 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을 그림으로 그릴 화공을 동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아름다운 장관을 마주하면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으며 그 분위기에 푹 빠지기도 하잖아요? 과거 선비들도 마찬가지였던 셈이지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가 가장 크지요? 옛 선비들도 먹고 자는 문제는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혈연·지연·학연으로 엮힌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숙박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비들은 개인 집 사랑방이나 주막을 이용하였고, 터러 관아 건물에서 숙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행 중의 식사는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 지인에게 대접받는 경우, 주막 등에서 사 먹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한 음식은 보통 2~3일 치의 양만 준비하였어요. 쌀과 반찬, 술, 그리고 고 쌀·보리·콩 등으로 만든 미숫가루, 보릿가루, 말린 고기인 육포, 떡과 과일 등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근교지로 여행할 때 준비하는 도시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특히 미숫가루와 보릿가루는 가벼워서 보관하기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했답니다. 유람 중 그 자리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는 경우는 동행한 종이나 승려가 맡아 준비를 했어요. 산이면 주변의 나물이나 버섯, 해안 가면 미역·전복·생선 등을 채취하여 음식을 만들었지요.



▲ 김홍도, <<주막>>

가만히 보면 유람을 떠날 때 선비들은 승려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을 하며 여행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는 승려도 있었어요. 산을 유람할 때 길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가마꾼 역할도 해야 했으며,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했기에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사찰별로 일정한 구역을 정해 유람 온 선비를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찰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람객을 따라다니는 역할이 너무 힘들어 절을 떠나는 승려가 늘어나 이로 인해 절이 쇠퇴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조영석, <<송하독서도>>

여러분은 여행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나요? 유람길에 오른 선비들의 여행 가방에는 항상 책이 있었습니다. 유람을 떠나서도 선비들은 책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눈에 담고 즐기기도 모자란 시간에 책이라니요? 이들은 단순히 여행길에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성리학의 정신을 따라 학문에 정진하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난 것이지요. 따라서 많은 선비들은 여행지에서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명승지에서 독서를 통해 새로운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구름과 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비워내고, 책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요. 또한 붓, 벼루 등 문방구도 필수로 챙겼습니다. 종이는 휴대가 쉽도록 미리 잘라서 책으로 엮어 지니고 다녔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선비들은 굵이굵이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 유람길에 오릅니다.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떠나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만끽하고, 낯선 사람과 교류하고 지역을 이해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요.

조선시대 수많은 선비들이 찾은 명승지 중 유명한 곳이 충청북도에 3곳 있습니다. 바로 속리산과 속리산 안에 숨겨진 명소,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그곳으로 오늘 우리도 한 번 유람을 떠나 볼까요?



III

선비들이 찾은 충청북도의 명승지

조선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속리산은 지금도 여전히 멋진 풍
광을 자랑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나무꾼이 선유대에서 시
간 여행을 했듯이, 우리도 속리산
에서 200여 년 전의 선비들을 만
나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노론의 심신 수련장, 속리산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과 경상북도 상주 사이에 있는 산으로, 조
선시대 선비들이 많이 찾은 산입니다. 속리산 화양동은 조선 후기의
대표학자 송시열*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살았던 곳인데요. 후학 양
성과 학문 수양을 속리산에서 했기 때문에 속리산으로의 유람은 노
론* 계열의 충청북도 선비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들은 송시열의 흔
적을 찾아 유적을 답사하고, 산수를 유람하였습니다.

속리산 유람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선비들이 방문했던 곳은 상현
서원^{象賢書院}과 연괘송^{鰲掛松}이었어요. 상현서원은 김정, 성운, 성제원,
송시열 등과 같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기 때문에 선비들은
이곳에 방문하여 유람에 오른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학문에 대한 생
각을 정리하였지요. 또한 연괘송은 세조와 관련한 이야기가 남아있
어 선비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당시 소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늘어뜨린 채 길을 막고 있어 가마꾼들이 곤란해
하자, 세조가 “가마가 걸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자신
의 가지를 들어 올려 가마가 걸리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이품^{正二品}’의 벼슬을 내린 것이지요. 그 뒤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연괘송’ 또는 ‘정이품송’이라 불렀습니다. 나무에 벼슬
을 내리다니, 좀 엉뚱하면서 재미있지요?

* 조선 후기의 문신 겸 학자입니다. 주자
학의 대가로서 송시열의 정치 사상은 조
선 중기의 사림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것
이었습니다.

* 조선시대 같은 세력의 정치집단인 봉당
중 하나로 남인(南人)과 대립하는 과정
에서 소론(少論)과 함께 서인(西人)에서
갈라져 나온 당파입니다. 노론은 송시열
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파를 이루어 소론
과 대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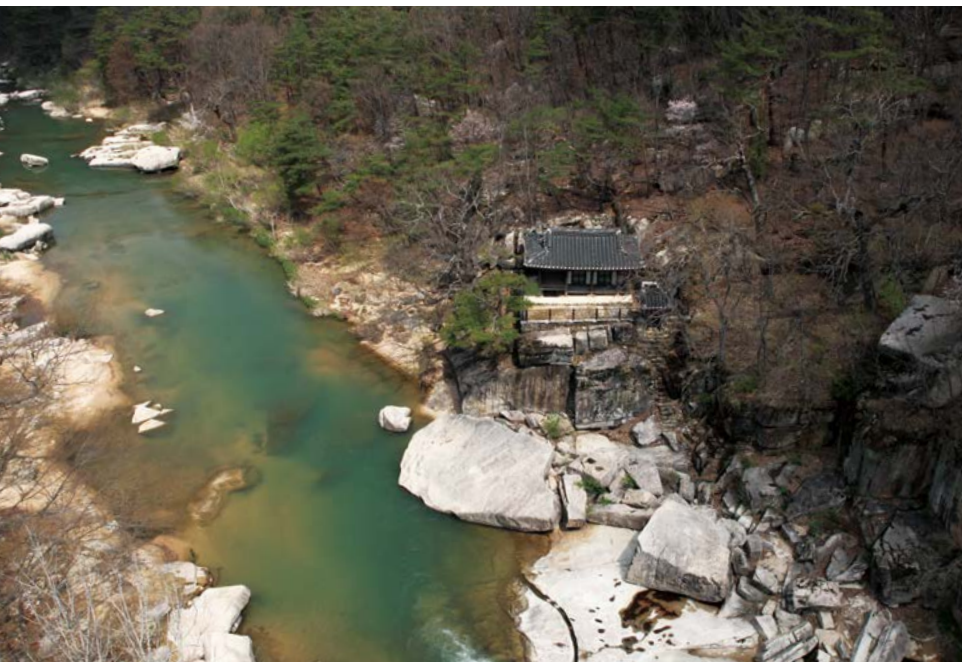


송시열의 손길이 닿은 화양구곡 華陽九曲

속리산에서 선비들이 많이 찾은 명승지 중 한 곳은 화양구곡입니다.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곳이라 불리는 화양계곡에서 특별히 이름난 절경 9곳을 일러 화양구곡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송시열이 붙였습니다. 이곳은 송시열이 60세(1666년)부터 81세(1687년)까지 지냈던 곳입니다. 송시열이 여기에 있으니 그의 제자들 역시 이곳으로 모였겠지요? 자연스럽게 화양동에 만들어진 송시열의 학파는 그가 이곳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생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주자*가 무이산의 아름다운 경치 아홉 계곡을 무이구곡 武夷九曲이라 불렀는데, 송시열은 이 무이구곡을 성리학적 이상이 실현된 공간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을 직접 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서 최대한 비슷한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즐기고 만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양계곡의 아름다운 절경을 찾아내어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리학자인 주자처럼 살고 주자처럼 생각하고자 하였어요.

* 주자(朱子, 1130~1200)는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 푸젠성(福建省) 우계(尤溪)에서 태어나 주자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자는 원희(元晦), 이름은 희(熹)입니다. 주자의 '자(子)'는 존칭입니다.

▼ 4곡 금사담과 암서재



화양구곡을 하나씩 살펴보면 계곡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 1곡, 경천벽 擎天壁입니다. 이곳은 화양계곡의 남쪽에 있으며, 절벽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하여 경천벽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실제로 보면 암석이 층층히 서로 이어져 있고, 하늘을 받치듯 높이 솟아 있습니다. 현

재 이곳에 '擎天壁'이라 새긴 글씨가 남아 있으며, 그 옆 바위에는 '華陽洞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1곡에서 400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맑은 계곡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2곡 운영담 雲影潭입니다. 맑은 물에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인 운영담은 주자가 지은 <관서유감 觀書有感>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 '天光雲影共徘徊'에서 '雲影(구름 그림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운영담 앞 연못을 이루는 곳 바위 아래쪽에 '雲影潭'이라 새긴 글씨가 남아 있어요.

2곡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물가 남쪽으로 평평한 바위가 나오는데요. 그곳이 3곡 읍궁암 泣弓巖입니다. 송시열은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의 어릴 적 스승이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효종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북벌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시열은 이 바위 위에서 통곡하였는데, 활처럼 몸을 구부리고 곡을 했다는 의미에서 읍궁암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좌우에 비석이 있고 비석 가운데 '泣弓巖'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비석은 사라져 비석을 세웠던 흔적만 남아있고, 읍궁암이라는 글자 역시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1곡 경천벽



▲ 2곡 운영담



▲ 3곡 읍궁암

* 명(明)나라 이후 만주족 누르하치[努爾哈齊]가 세운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 (1616~1912)

*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세운 통일왕조(1368~1644)



▲ 4곡 금사담



▲ 5곡 첨성대



▲ 6곡 능운대



▲ 7곡 와룡암

4곡 금사담^{金沙潭}은 물가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깊고 맑으며 모래가 깨끗하고 금싸라기 같아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송시열은 이 못의 북쪽 언덕 바위 위에 암서재^{巖棲齋}를 지어 그곳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암서재의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썼다는 글씨가 보입니다.

忠孝節義 충성, 효행, 절개, 의리(유학의 실천덕목)
蒼梧雲斷 武夷山空 창오산에 구름 끊기고, 무이산도 텅 비었구나

이는 명나라*의 멸망과 효종의 승하를 안타까워하며 쓴 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작은 배가 있어 금사담을 건너 암서재에 왕래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화양교 위로 층층이 쌓인 바위가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5곡, 첨성대^{瞻星臺}입니다. 평평하고 각진 암석이 층층이 포개져 있어 높은 곳에서 별을 바라본다는 뜻이지요. 이곳에는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非禮不動 예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萬折必東 물은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송시열은 자신의 뜻을 첨성대 바위에 글자로 새겨 실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6곡 능운대^{凌雲臺}는 다른 곡^곡들과 달리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큰 바위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듯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어 능운대라 불리지요. 능운대는 채운사^{綵雲寺}와 잇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채운사는 조선 효종 때 만들어진 환장암^{煥章菴}을 확장하여 중건한 절입니다. 예전에는 암서재의 뒷길로 환장암(지금의 채운사)까지 이어 오면 능운대에 오를 수 있었으나, 현재는 화양계곡을 따라 정비된 길을 걷다가 채운사를 통해 능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7곡 와룡암^{臥龍巖}은 큰 암석이 물결 따라 길게 뻗어있는 자태가 용이 누워 꿈틀거리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8곡 학소대^{鶴巢臺}는 청학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길렀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학은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동물로, 청학이 새끼를 길렀다는 의미는 화양구곡이 선비들의 이상향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9곡 파곳^{巴串}은 한자 파^巴의 모양과 닮은 바위 위로 흐르는 물결이 용의 비늘을 꿰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어요. 계곡 물 가운데에 하얗고 넓은 바위가 펼쳐져 있어 여러 사람이 둘러앉을 수도 있지요. 계곡물이 불어나도 발목만 걷고 물을 건널 수 있었고, 물이 마르면 돌이 완전히 드러나 이곳에 앉아 글씨를 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은 우묵하게 파인 곳을 그릇 삼아 밥을 담고 국을 말아 먹기도 했다고 해요. 한편, 신선들이 술을 마셨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9곳의 절경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한 송시열, 이곳을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 8곡 학소대



▲ 9곡 파곳



신선이 놀았다는 선유구곡 仙遊九曲

*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조선의 지리·사회·경제 등을 정리하여 『택리지(擇里志)』를 저술하였습니다.

* 1751년(영조 27)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이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나라 지리서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화양구곡뿐만 아니라 선유구곡도 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선유구곡이 화양구곡과 더불어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라고 합니다. 이 선유구곡을 한번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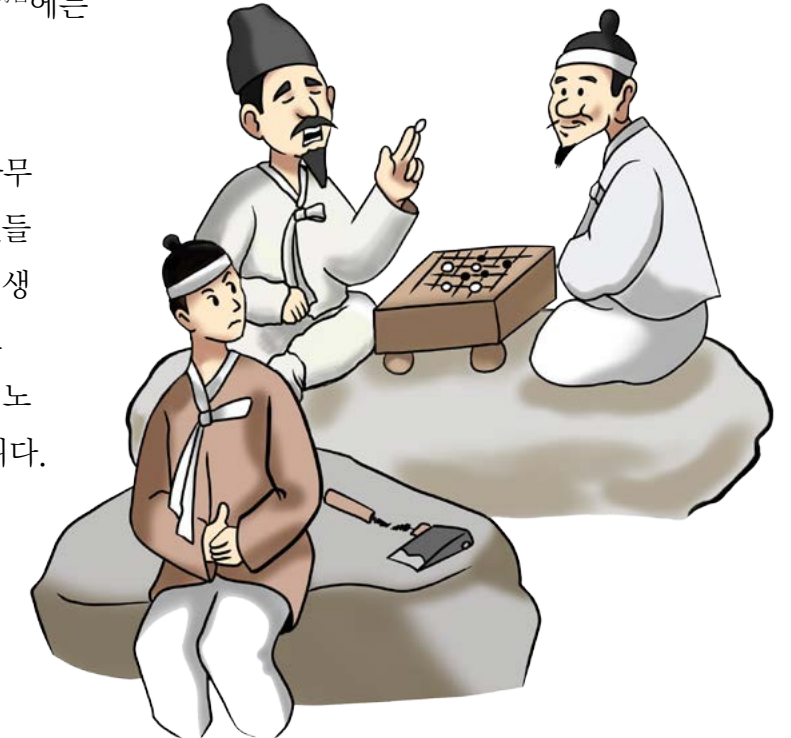
선유동에 위치한 선유구곡은 길이가 1~2km에 불과한 계곡으로 화양계곡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요. 그러나 독특하게 생긴 기암괴석(奇巖怪石)과 물이 이루어내는 장관은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선유구곡에서 선(仙)은 신선을 뜻하며, 유(遊)는 논다, 즐기다라는 뜻으로, 신선이 놀다 간 곳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곳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 선유구곡



선유구곡 역시 이름처럼 9개의 명승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과 의미를 알아볼까요? 1곡 선유동문(仙遊洞門)은 신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바위 위에 ‘仙遊洞門’이 쓰여져 있어요. 2곡 경천벽(擎天壁)은 절벽의 높이가 수백 척으로 바위층이 첩첩을 이루고 있어 지붕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선유구곡의 경천벽은 화양구곡의 경천벽에 비하면 여성적인 미(美)를 가지고 있지요. 3곡 학소암(鶴巢岩)은 청학이 집을 짓고 새끼를 치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암절벽(奇巖絶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그 사이로 소나무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지요. 4곡 연단로(鍊丹爐)는 신선들이 불사의 약인 금단(金丹)을 달여 먹던 화로라는 뜻으로, 신선들은 이곳에서 금단을 만들어 먹고 장수하였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 바위는 평평하고 가운데가 절구처럼 패여 있어요. 5곡 와룡폭(臥龍瀑)은 누워 있는 용이 물을 내뿜는 듯이 쏟아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물소리가 벼락치듯 크게 울리고, 흘러지는 물은 물안개가 되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지요. 6곡 난가대(爛柯臺)와 7곡 기국암(碁局岩)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나무꾼이 선유동 골짜기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바위에 노인들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 근처에 가보니,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무꾼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이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네. 이곳의 시간은 속세의 시간과 다르니, 더이상 구경하지 말고 어서 자네가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나무꾼이 부랴부랴 도끼를 챙겨서 집에 돌아가려는데 도끼날만 있고 도끼자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도끼날만 챙겨 집으로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벌써 150년이 훌쩍 넘어 자신의 5대손이었던 것이지요.

나무꾼의 도끼자루가 썩은 바위가 제6곡 난가대이고, 노인들이 바둑을 둔 바위가 제7곡 기국암이라고 합니다.



8곡 구암^{龜岩}은 바위 생김새가 꼭 큰 거북이가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듯한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위의 겉은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고 등과 배가 꿈틀거리는 듯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9곡 은선암^{隱仙岩}은 바위가 양쪽으로 서 있고, 그 사이로 열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데요, 신선이 숨는 바위라는 뜻으로, 옛날에 통소를 불며 달을 가지고 놀던 신선이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유구곡은 그 자체가 신선이 노니는 환상의 공간인 셈이지요.



▲ 1곡 선유동문



▲ 2곡 경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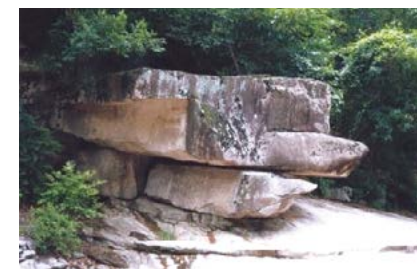
▲ 3곡 학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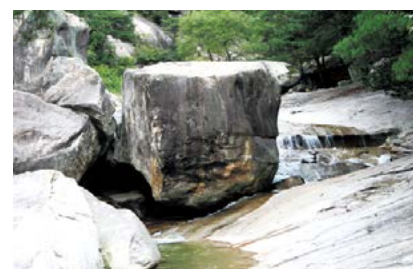
▲ 4곡 연단로



▲ 5곡 와룡폭



▲ 6곡 난가대



▲ 7곡 기국암



▲ 8곡 구암



▲ 9곡 은선암

이처럼 속리산의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은 선비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이 풍류를 즐겼던 속리산은 지금도 여전히 멋진 풍광을 자랑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나무꾼이 선유동에서 시간 여행을 했듯이, 우리도 속리산에서 200여 년 전의 선비들을 만나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람은 선비들은 학문 정진을 위한 행동만 했을까요?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일상을 잊고, 일상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계곡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계곡물에 풍덩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물놀이는 선비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선비들은 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중시하는 선비들이 개구쟁이처럼 벌거벗고 폭포를 타고 물속을 헤엄치는 것은 유람을 떠났을 때만 허용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풍경을 앞에 두고 차^茶나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등의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 이경윤, <<고사탁족도>>



IV

유람의 끝자락

선비들은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
에만 그치지 않고, 여기서 느꼈던
감성과 깨우침 등 다양한 체험을
기행문, 시와 그림 등의 무수한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자료들은 또 다른 예비 여행자
들에게 명승지와 여행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
었습니다.

선비들은 유람을 하는 과정에서 경치 좋은 장소의 바위나 건물 벽,
기둥 등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구를 남기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를
제명^{題名}이라고 합니다. 제명은 먼저 붓으로 글씨를 쓰고, 쓴 글씨를
따라 돌 등에 새겼습니다. 당시 제명은 시 쓰기와 함께 선인의 유람
관행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강하였으며,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조각하는 제명이 크
게 유행함에 따라 성한 바위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산을 오염시키
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선비들도 적지 않았어요.

한편 선비들이 남긴 것은 제명만이 아니에요. 선비들은 단순히 유
람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기서 느꼈던 감성과 깨우침 등 다
양한 체험을 기행문과 시, 그림 등의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떤
선비는 유람을 떠난 과정에서 지은 시들을 묶어 책으로 남기기도 하
고, 또 어떤 선비는 그간의 여행을 상세히 기록한 견문록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아름다운 절경을 그림으로 남긴 경우도 있었지
요. 특히 선비들의 유람기는 유람을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
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유람
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 유람을 하며 느낀 점
들이 매우 상세히 나타나 있고 조금 더 살펴
보면 유람을 떠난 사람의 성향, 산수에 대
한 생각, 시대 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다시 또 다른 예비 여행자들
에게 명승지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했던 문화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산수^{山水}를 단순히 자연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정신수양과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람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기 힘들었어요. 어려운 결정으로 떠난 일생의 숙원, 유람에서 선비들은 자연 그대로를 만끽하고, 학문과 여행을 연결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며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유산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여행을 떠날 때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처럼 여행에서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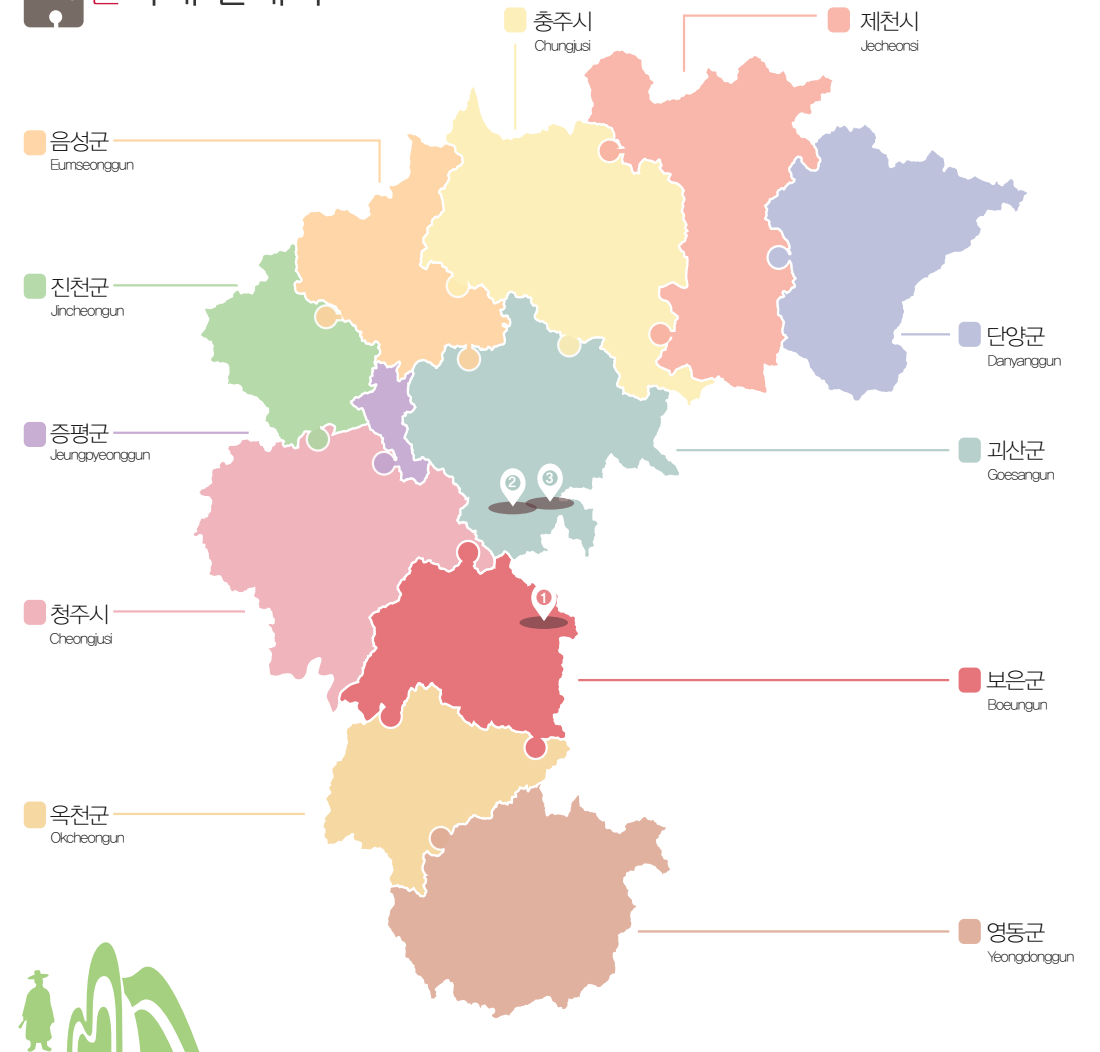


V

지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승지로
유람을 떠나볼까요?

문화재 안내지도



1. 속리산

- 소재지 :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주차장)
-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는 산으로 높이는 1,058m에 이릅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와 풍성한 수목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작은 금강산이라고도 불리지요~

2. 괴산 화양구곡

- 소재지 :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 종목 : 명승 제110호
-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이 말년에 거주한 곳으로, 속리산의 화양천을 중심으로 3km에 걸쳐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3. 괴산 선유구곡

- 소재지 :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 선유구곡은 괴산 선유동에 위치하는 1~2km에 걸친 계곡입니다. 기암괴석과 계곡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이랍니다!

[참고 문헌]

- 박신환, 『우암 송시열』, 서광사, 201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2.
- 김건곤외, 『한국 명승고적 기문사전』, 이회문화사, 2005.
- 김영택, 『펜화로 읽는 한국 문화유산』, 책 만드는 집, 2017.
-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 과산군·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과산 화양구곡 명승지정 방안 연구』, 2013.
- 과산군·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과산 선유구곡 명승지정 연구』, 2017.
-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양상」, 『정신문화연구』, 34(4), 37-62, 2011.
- 이상주, 「화양구곡·선유구곡의 완성과정과 화양구곡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효숙, 「화양구곡 시문에 나타난 구곡의 장소성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2002.
-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정치영외,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청천면지발간추진위원회 편, 『청천면지』, 2009.
-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역주 화양동지』, 충북대학교 출판부, 2009.
- 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I, 2016.
- 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II, 2017.
- 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III, 2018.

[참고 사이트]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문화유산채널(<https://www.k-heritage.tv>)

[사진 출처]

- 04 작자미상, <〈고기굽기〉〉_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6 명주 청학동 소금강(명승 제1호)_문화재청
- 06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_문화재청
- 07 정선, <백천교>, <〈신묘년 풍악도첩〉〉_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보물 제1875호)
- 08, 10 작자미상, <〈선비들의 모임〉〉_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12 남여_국립민속박물관
- 13 김홍도, <〈주막〉〉_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보물 제527호)
- 14 조영석, <〈송하독서도〉〉_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16 청법대와 산수유릿지_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18 4곡 금사담과 암서재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19 1곡 경천벽, 2곡 운영담, 3곡 읍공암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0 4곡 금사담, 5곡 침성대, 6곡 능운대, 7곡 와룡암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1 8곡 학소대, 9곡 파곳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2 선유구곡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5 1곡 선유동문, 2곡 경천벽, 3곡 학소암, 4곡 연단로, 5곡 와룡폭, 6곡 난가대, 7곡 기국암, 8곡 구암, 9곡 은선암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27 이경윤, <〈고사탁죽도〉〉_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28 화양구곡 8곡 학소대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31 화양구곡 4곡 금사담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32 화양구곡 9곡 파곳_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총괄 |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기획 |

박소연(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엄혜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심경화(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 집필진 |

김은일(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김소영(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석사)

| 감수 |

조혁연(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충북대 사학과 초빙교수)

방탄 유람단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

전화 043-279-5450

홈페이지 <http://www.chungbuk.re.kr>

편집·인쇄 라임커뮤니케이션

본 책자는 문화재청 · 충청북도 · 복권기금(문화재보호기금)에서 지원합니다.